

OECD DAC 동향

(2013. 8. 12.)

경협기획실 정책연구팀

1. Development Issue

① Aid for Trade (AfT) at a Glance 2013 발간 (주요내용)

- 동 책자는 2007년부터 OECD와 WTO가 격년으로 공동 발간하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 '13년의 주제는 'Connecting to Value Chains'
 - 제4차 Global Review of Aid for Trade('13.7.8-10)에서 발표
- **Chapter 1. Is aid for trade adapting to new realities?**
 -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가치사슬(value chain)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최근의 동향 소개
- **Chapter 2. Aid-for-trade flows and financing**
 -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11년 AfT 실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빈국에 끼친 영향은 적었으며, 향후 AfT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Chapter 3. Value chains and the development path**
 - 농식품, ICT, 섬유, 관광, 교통, 물류 산업 연구를 통해 가치사슬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통로가 됨을 분석
 - 특히, 개도국 기업의 참여가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도움
- **Chapter 4. Boosting value chains via regional aid for trade**
 - 역내 AfT를 이용할 때, 저소득국과 최빈국(LDCs)의 무역 참여 증가와 가치사슬 진입에 용이
 - 특히, 역내 생산 네트워크가 중요

○ **Chapter 5.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id for trade**

- AfT의 증가는 무역 증진과 직접적 연관이 있으며, 인프라와 무역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무역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AfT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으로 평가

○ **Chapter 6. The way forward**

- AfT의 향후 발전을 위해 무역관련 남남협력 관계자와 민간 기업의 AfT 참여 증대, 개발금융 등으로의 ODA 개념 확대, AfT 및 개발협력 활동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 등 필요

② 글로벌파트너십 집행위원회(Global Partnership Steering Committee) 3차 회의* 개최

* 집행위원회 1-2차 회의 관련 내용은 DAC 동향 제4호('13.3.15) 참조

- '13.7.25-26,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

○ **(주요의제)**

① **특별세션 : 아프리카의 효과적 개발협력**

② **글로벌파트너십 장관급회의의 정치적 비전 및 의제**

- 부산 공약의 이행 (Progress since Busan)
-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 국내자원동원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 민간부문 (Private Sector)

③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발족 준비 경과보고**

④ **글로벌파트너십과 여타 국제포럼, Post-2015 논의의 연계**

- 우리나라는 '서울 ODA 컨퍼런스' ('13.10.8, 외교부-KOICA) 등 개최 계획 발표

⑤ **UNDP-OECD 합동준비팀의 활동 보고 및 추가 재정 확보의 필요성**

- 합동준비팀은 '13년도 예상 활동비 180만 달러 중 80만 달러를 확보**한 상황으로, 일본, 독일 등 글로벌파트너십에 적극적인 여타 DAC 회원국들의 재정적 기여가 절실한 상황

** 한국 10만 달러, 미국 40만 달러, EU 30만 달러 기여

○ (회의결과)

- 제1차 글로벌파트너십 장관급회의를 '14년 상반기 (4월 혹은 6월) 멕시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차기 집행위원회는 '13.10월, '14.1월 개최 예정이며, 장관급 회의의 개최 방식 및 결과문서 등을 집중 논의
- 장관급회의 준비를 위해 각 주제별로 관심 있는 국가끼리 장관급회의 세션 구성 및 성과물 모색을 위한 워킹그룹을 형성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지식공유 분야에서 동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

* 글로벌파트너십이 발족하게 된 '11년 부산총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글로벌파트너십 회원국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바, 멕시코에 부산총회 개최 경험 전수 등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

③ 제967차 DAC 정례회의 결과

- '13.7.9,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 (개발재원 관련 협의) J.Lomóy OECD 개발협력국장은 Post-2015 개발협력 의제와 관련하여 개발재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개발재원은 크게 ①국내재원동원, ②민간금융, ③공공금융, ④새로운 공여자의 4개 주요 이슈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언급
 - 개발재원 관련,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 그룹(**Expert Reference Group, ERG**)을 설치 예정이며, '14년 말 까지 3회 이상 회의 개최 목표
 - 대부분의 참석국은 개발재원의 정치적 논의와 기술적 논의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에 동의
 - UN의 Post-2015 의제 논의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OECD 혼자 지나치게 앞서 나가서는 안 되며, 개발재원 논의가 자칫 외부재원을 강조하면서 ODA의 비중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의도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공여국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민간부문의 글로벌파트너십 참여 확대) 동 의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네덜란드, 미국이 발제

- (한국)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소개
- * '12.8.13 출범한 개발협력 분야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참여
- (네덜란드) 최근 채택된 개발협력정책 'What the world deserves: A new agenda for aid, trade and investment' 및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7.5억 유로 규모의 Dutch Good Growth Fund 소개
- (미국) 글로벌파트너십의 민간 참여 관련 빌딩블럭에 대한 참석국의 관심을 환기하고, '14년 개최 예정인 글로벌파트너십 장관급회의에서 '공개적 개발(Open Source Development)*, '개발 영향채권(Development Impact Bonds, DIB)** 등 혁신적 개발 협력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언급

* 민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S/W를 개발하듯이 국제개발협력 이슈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특정 플랫폼(주로 인터넷)에 공개하면 개발전문가, 기업, 학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이 참여하여 해결책 제시하거나 자원들을 기부하여 이슈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개념으로, '08년 USAID에서 전파 시작

** 민간투자자가 자기자금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사전에 협의한 성과를 낼 경우, 공여국 또는 수원국이 투자자금 및 수익을 보상하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ing)의 일종. DIB는 공여국이 자금을 조달한 개발사업보다 효과성이 더 높일 수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여국의 예산제약으로 축소된 ODA를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영국에서 도입

2. DAC 회원국 동향

① 중국, 수단 공항 건설에 7억 달러 지원 (7/9)

- 중국수출입은행(CEXIM)은 수단의 수도 카르툼(Khartoum)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7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차관 제공에 서명
- 남수단 원유 수출시 수단항 통과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알려짐
- 중국은 수단, 남수단 양국 모두에서 최대 투자자이며 원유 사업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

[참고-1] 중국 대외원조정책의 역사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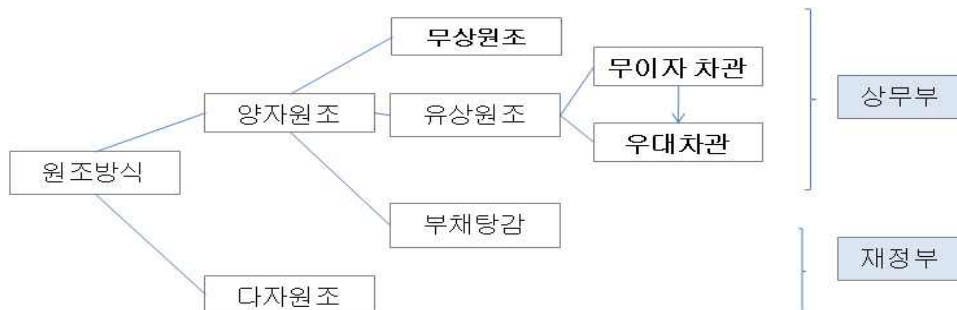
1단계 (1950-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대 아시아 인접국가에 국방 및 경제원조 제공 - 1955년 반동회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 1960년대 중소분쟁으로 제3세계국가 지원 - 1973년 재정대비 원조 규모 7.2%
2단계 (197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요소보다 경제적 이익 중시 - 플랜트 지원 및 기술원조 비율 증대 - 다자원조 확대 실시 (1982년 UN기구와 다자간 사업 개시)
3단계 (1995-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공동발전 강조 - WTO 가입후 국제사회의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역할 강조 - 2006년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지도부의 아프리카 16개국 순방 - 2009년 중-아프리카 포럼 4차 회의 개최
4단계 (2011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4월 21일 대외원조에 관한 최초의 공식보고서 『중국대외원조백서』를 발표 (중국대외원조의 5대 원칙) ① 수원국의 자주적 발전능력 강화 ② 수원국 내정불간섭 원칙 고수 ③ 평등하고 호혜적인 공동발전 ④ 국가의 역량에 맞추어 최선을 다함 ⑤ 국내외 정세에 부합하는 개혁과 혁신

(참고문헌)

권율 (2010) 「중국의 대외원조 추진정책과 대응과제」, 『한국의 개발협력』, 2010년 제2호, pp.56-69,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박민숙, 박수경 (2011) 「『중국대외원조 백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5 No.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2] 중국의 대외원조 지원 방식



(참고문헌)

Kobayashi, T. (2008) 'Evolution of China's Aid Policy', *JBICI Working Paper*, No.27, JBIC Institute(JBICI),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JBIC)

[참고-3]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

(백만 USD)

연도	ODA 지출액	ODA/GNI (%)
1999	474	0.044
2000	554	0.047
2001	569	0.044
2002	604	0.042
2003	631	0.039
2004	733	0.038
2005	912	0.041
2006	1,033	0.039
2007	1,467	0.043
2008	1,808	0.041
2009	1,950	0.039

(참고문헌)

권을 (2010) 「중국의 대외원조 추진정책과 대응과제」, 『한국의 개발협력』, 2010년 제2호, pp.56-69,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 중국은 OECD DAC 회원국은 아니나, 매년 일정 규모의 원조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으며, 자국이 직접 원조 실적을 발표

② 미국(USAID), 튀니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2천만 달러 규모 기금 설립 (7/9)

- 양국은 튀니지-미국 기업기금 (Tunisian-American Enterprise Fund, TAEF) 설립에 서약
 - USAID가 2천만 달러를 출자했으며, 기금은 주로 튀니지 중소기업 대상 차관 및 투자에 사용될 예정
 - 이사회는 미국인 6명, 튀니지인 3명으로 구성
- 기금으로 지원된 튀니지 중소기업 발전은 튀니지의 포괄적 경제 성장, 궁극적으로는 튀니지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③ 영국(DfID), 아프리카 무역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7/15)

- 영국 국제개발장관은 인도에 기반을 둔 비정부기구 Consumer Unity and Trust Society(CUTS) 30주년 행사에서 아프리카의 원조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한 신생 무역 투자 프로젝트들을 소개

- ① 국제무역센터(ITC)에 1.1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아프리카 15개국 2만 개 기업의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 경주
 - 개발도상국 무역 규제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완화 방안 연구 지원
- ② 우간다 무역 개발과 케냐 최대의 항구 몸바사항 현대화에 8.8천만 달러 투자
 - 우간다-르완다 간 주요 연결 도로 개보수
 - 우간다-남수단 간 국경 검문소 개설을 통해 one-stop 세관 시스템 구축
 - 컨테이너 이동 시간 단축 및 세관 대기 시간 단축
 - 세계 유수 기업과 총 3천만 달러 규모 사업 계약 주선 등 아프리카 여성경영인 지원
 - (기대효과) '16년까지 우간다 수출 3억 달러 이상, 케냐 수출 8억 달러 이상 확대

3. OECD/DAC 주요 일정

- 8월 한 달간 일정 없음